철길로 열어간
자력의 항로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머 리 말

우리 민족의 력사에는 외세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죄악이 새겨져있다. 지난 세기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겨레가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식민지노예살이를 하게 된것도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노들의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괴뢰지역에서는 여전히 친일매국노들이 제세상처럼 날뛰고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야 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예들이 오늘까지도 일본의 과거죄악과 저들의 반민족적범죄를 미화분식하면서 친일사대매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민족의 더없는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 도서에서는 괴뢰지역의 친일사대매국노들이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저 한다.

차　　례

1. 해방의 기슭에 돋아난 친일독버섯

□ 《부활》한 친일파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항복으로 우리 조국은 해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로 이룩된 조국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하여 해방직후부터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일제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부강하는 민주주의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러나 미군이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민 공화국남반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는 정반대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

해방직후 조선반도남부에는 일제의 조선침략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후예들, 일제당국으로부터 귀족칭호를 받은자, 조선총독부의 관리였던자, 일제경찰 및 헌병나부랭이들, 《사상범》담임 판사와 검사들, 일제당국에 의하여 임명된 파쑈단체와 군수산업의 책임자, 행정, 사법, 경찰기관과 련계를 가진 민간악질분자들과 같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버젓이 살아숨쉬고있었다. 일제패망후 수많은 인민들은 지난날 일제를 등에 업고 민

족앞에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런자들을 심판대우에 올려세울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친일분자청산이 시작되였었다.

하지만 각지에서 벌어진 이러한 대중적투쟁은 미군의 강점으로 하여 좌절되였다. 1945년 8월 28일 태평양방면 미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선주둔 일본군에 《나의 군대가 임무를 맡게 될 때까지 조선의 38°선이남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보존하며 명령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명령을 보낸데 이어 비행기로 그러한 내용의 삐라를 살포했다. 이어 괴뢰지역을 강점하고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공고히 하고 이 지역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보루》로 만들기 위해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민족반역자, 악질친일파들을 저들의 통치에 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건국준비위원회와 각지에 세워졌던 인민위원회들을 불법화하여 해산한데 이어 일본총독부산하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미군정의 직책들에 임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 괴뢰출판물은 이렇게 폭로하였다.

《미군정은 크게 나누어 두개의 조선인집단과 동맹관계를 이루어나갔다. 하나는 지주, 자본가계급이다. 이 집단은 주로 직접적친일파와 간접적친일파로 구성되였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관료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친일파집단이다. 미군정은 이들 직, 간접적인 친일파집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의 숙청을 제창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하여 <한국>을 반쏘, 반공의 보루

로 삼으려 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한달전까지만 해도 《천황페하 만세!》를 부르짖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카멜레온처럼 변신하여 친미매국노로 둔갑하였다.

일본헌병사령관의 첩자였던 송진우, 일제의 조선총독부 고문을 했던 김성수와 같은 친일역적들은 저들의 정치적 목적실현을 위해 1945년 9월 《한국민주당》(《한민당》)이라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정당을 조작하고 미군정통치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하여 경무부장 조병옥, 경찰총장 장택상,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청장 리인 등 《한민당》패거리들이 미《군정청》에 틀고앉아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당시 《한민당》은 《미군정시대의 여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미국이 1946년 12월에 조작한 《과도립법의원》과 1947년 6월에 《군정청 민정부》의 이름을 바꾸어단 《과도정부》 역시 그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친일파들로 채워진 민족반역자들의 집합체였다.

어느한 괴뢰출판물은 이에 대해 이렇게 폭로하였다.

《1947년 미군정 고위관료가운데 115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한 결과 70명이 일제치하에서 관직을 가졌고 23명은 일제시기 공기업이나 사기업 소유주들, 지배인 혹은 관리직 등이였다. 법무부 관료 4명가운데 3명은 식민지시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일했다. 도지사 9명가운데 8명은 식민지시기 도지사나 군고위관리로 일했다. 우파들과 일제식민지통치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장악할수 있었던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정책의 필연적결과이다.》(도서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58페지)

미국은 경찰과 군대 등 파쑈폭압기구들에도 친일파들을 적극 등용하였다.

미국은 괴뢰경찰을 조직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악질경찰을 하던자들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특히 괴뢰경찰 고위직은 거의 전부가 일본경찰 또는 일본군대출신으로서 친일매국행위를 일삼던자들이였다. 당시 괴뢰경찰조직을 책임졌던 미군정의 관료라는자가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다시 복무하고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수 있을것이다. 일본에 의해 채용되였던 조선인들을 활용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지껄인 사실은 미국이 괴뢰경찰을 친일역적들로 조직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약 5 000명에 달하는 일제시기 친일경찰들이 미군정이 조직한 경찰에 재기용되였다. 오죽했으면 괴뢰패당내부에서까지 《오늘의 경찰은 일본이 키운 경찰과 반역자들의 피난처》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겠는가.

괴뢰군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괴뢰군장교들을 키워내기 위해 세운 《군사영어학교》 입학생의 대부분은 일본군과 그 괴뢰군인 만주군에서 장교생활을 하면서 일본에 복무했던 악질친일파들이였다. 일본군 대좌였던 리응준과 만주군 장교였던 원용덕, 백선엽을 비롯하여 한때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장교로 있으면서 반일애국세력에게 총부리를 내댔던자들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경비대》 련대장, 《륙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괴뢰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덧쌓았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이루어진 괴뢰군과 경찰은 미국의 조종하에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진압하였다. 1946년 10월인민항쟁때 괴뢰군과 경찰은 미군정페지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여 일떠선 항쟁참가자 2만 5 000여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또한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미군정통치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4.3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미제침략군과 함께 제주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한편 미국이 손때묻혀 키운 주구인 리승만역도도 추악한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고 괴뢰정권조작에 광분하였다.

리승만역도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대양건너 미국에 가서 동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자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말로만 《독립운동》을 부르짖던 특등친미사대매국노였다. 이자가 미국에서 부린 친미추태가 얼마나 역겨웠는가 하는것은 《리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리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해외동포들속에서 터져나온 사실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괴뢰지역에 자기의 정치적기반이 변변히 없었던 리승만역도는 제놈의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집합체인 《한민당》패거리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그들을 리용해먹으려고 했다. 《한민당》패거리

들은 그들대로 미국의 신임을 받는 리승만역도에게 붙어 저들의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했으며 이러한 추악한 기도에 따라 리승만역도와 손을 잡고 미국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인 망국적인 단독선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48년 5월 단독선거로 조작된 괴뢰정부는 미국의 철저한 노복인 동시에 친일파들의 서식장이였다. 이에 대해 한 괴뢰출판물은 《<단독정부>조작으로 미국은 반공, 반쏘, 반북정책을 고수하고 신식민주의적 사회구조를 확립하였으며 극우, 분단세력들은 <제헌국회>를 친일, 친미의 극우세력권화하였다. 또 고위정책직, <정부>의 최고통치권자를 비롯한 장, 차관 등을 친미, 친일, 극우분자들이 장악했으며 행정실무직은 친일관료들이 차지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실질적으로 리승만역도가 권력을 장악한 후 12년동안만 놓고보아도 괴뢰정부의 《총리》로부터 《장관》 등 요직의 근 50%가 일제시기 친일파였거나 조상이 친일매국노였던자들이였다.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 《대법원》 원장 등 립법, 사법부에도 적지 않은 친일파가 들어가있었으며 특히 《륙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원이 일본륙군사관학교 등을 졸업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앞장섰던 구일본군출신들이였다. 군부와 행정, 립법, 사법 등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언론, 교육, 문화, 산업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하여 《친일파는 사회의 영원한 지배층》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오늘까지도 괴뢰지역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리승만역도이후에도 괴뢰지역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

라앉은자들가운데는 본인이 직접 일제에게 복무하였거나 친일에 기를 쓰고 매여달린 조상들처럼 일본이라면 덮어놓고 머리를 조아린 친일매국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를 놓고 한 언론은 《력사의 근본을 세우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서부터 잘못이 저질러졌고 친일파에 대한 력사의 심판이 해방된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기때문》이라고 평하였다. 이처럼 응당 철저히 청산되였어야 할 친일매국노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부활》하여 조작한 괴뢰정권이야말로 해방의 기슭에 돋아난 친일독버섯이며 괴뢰지역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권력을 쥐고 《주인》으로 행세하며 근 80년세월 제세상처럼 날뛰여온것은 민족사의 수치이고 비극이 아닐수 없다.

□ 비운의 《반민특위》

미군정통치시기는 물론 괴뢰정권이 조작된 이후에도 괴뢰지역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외세에게 빌붙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심판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직후의 세계적흐름이였다. 일제에게 침략당했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해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당한 프랑스, 벨지끄, 네데를란드 등 유럽나라들에서도 침략자들에게 협력했던 반역자, 매국노들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런 흐름속에서 미국에 의해 강점당한 괴뢰지역에서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1947년 7월 《과도립법의원》에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는 《특별법》이 통과되였다. 법적용대상자를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로 나누고 민족반역자는 사형 또는 10년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재산은 일부 또는 전부 몰수하며 부일협력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것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미군정에 의해 《인준보류통지》를 받고 그해 11월 사문화되였다.

그후 민족반역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해 1948년 9월 괴뢰국회에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통과되였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조직되고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가 나왔으며 각 도별로 지부가 결성되였다.

당시 진보적언론들은 《이 땅이 해방된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왜정에 아부하여 조국을 팔아먹고 동포를 괴롭혔던 악질적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국민의 부르짖음은 무시된채 친일파들은 관리로서 미군정아래 구석구석 파고들어 앉았으며 중요산업부문에 뿌리박고 들어가 조금도 량심의 가책을 받음이 없이 뻔뻔스럽게 활개치고있다. 이제 <반민법>이 문서상의 처단법에 그치지 말기를 부탁한다.》, 《각성하라 반역도배!》, 《친일파, 반역자처단법안은 관용과 자비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상같은 엄격한 방침아래 단행될것을 강조한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반민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질겁한 친일, 친미매국세력은 《반민법》의 시행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이자들은 《<반민법>은 <망민법>》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테로분자를 고용하여 《반민특위》성원들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였다. 리승만역도도 《<반민특위>활동이 치안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는 식으로 《반민특위》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민족반역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체포를 시작하였다. 식민지통치시기 매판자본가로서

일제에게 적극 협력한 박흥식에 대한 검거를 개시로 만주에서 관동군 밀정질을 한 당시 《대한일보》 사장 리종형, 도지사와 중추원 부의장까지 한 친일파거두 박중양, 일본군에 비행기를 헌납한 방의석, 3.1인민봉기당시 민족대표로 나섰다가 전향한 최린, 이또 히로부미의 양딸이며 밀정이였던 배정자,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후에도 경찰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학살한 《경찰청》 전 수사과장 로덕술 등 많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였다.

《반민특위》의 이러한 활동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리승만역도는 직접 나서서 로덕술을 석방할것을 《반민특위》에 요구하였으며 괴뢰국회에서도 《반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속에 괴뢰경찰은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반민법》제정과 《반민특위》활동에 앞장섰던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벌려 10여명을 체포하였다. 특히 1949년 6월 6일 아침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수십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거느리고 《반민특위》사무실을 습격하여 《반민특위》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련행하였으며 《반민특위》소속의 《특별경찰대》를 무장해제해버림으로써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리승만역도는 그 일은 자기가 명령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괴뢰경찰의 백색테로를 비호두둔하였다. 그후 괴뢰국회에서 《반민특위》활동을 10개월이나 앞당겨 그해 8월 31일까지 끝내는 내용의 《반민법개정안》이 통과되고 그에 반발하여 《반민특위》성원전원이 사표를

냄으로써 《반민특위》는 1949년 9월에 해체되고말았다.

《반민특위》는 반년 남짓한 활동기간 수천명의 친일파를 조사하여 그중 300여명을 체포하고 200여명을 기소하였다. 하지만 리승만역도와 그 패당에 의해 체포되였던 친일파 대부분이 무죄 혹은 보석 등으로 풀려나왔다. 판결을 받았던 친일범죄자들도 그후 1년도 안되여 모두 석방되였다. 《반민특위》는 괴뢰군내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있는 친일분자들은 조사조차 하지 못하였다.

《반민특위》해체이후 괴뢰지역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더욱 살판치고 《친일파》라는 말자체가 《금기어》로 되다싶이 하였다. 《반민특위》사건은 괴뢰지역이야말로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진리의 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범죄

1950년 6월 미제의 조종하에 리승만역도는 북침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일본반동들은 미제침략군에 포와 포탄, 총탄, 지뢰 등 막대한 량의 군수품을 생산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해나섰다.

리승만도당은 이에 발맞추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일본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에 벌써 괴뢰들의 요구에 의해 일본은 3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여 옹진반도의 끝에 몰려있던 1 700여명의 괴뢰군패잔병들을 인천으로 수송하는 작전을 벌렸다.

또한 1950년 7월에만도 하루평균 20여척의 일본수송선들이 도합 1만t이 넘는 군수물자들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왔으며 그해 9월 미군의 인천상륙작전당시에도 수십척의 일본수송선이 동원되였다. 1950년 10월 리승만도당은 일본과 《해운잠정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막대한 군수물자와 병력을 일본수송선들에 실어 전방으로 수송하였다.

리승만도당의 매국배족행위에 의해 《한국구명의용대》, 《도꾜지원대》 등 각종 간판을 든 섬나라침략자들도 조선전선에 쓸어들었다. 1951년 9월 림진강계선에서 미군복차림으로 조선인민군에 포로된 한 일본놈이 자

기가 《도꾜지원대》라는 명목으로 조선전선에 제3차로 투입된 《경찰예비대》 대원이라고 실토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있다. 당시 일본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인원수는 8 000여명에 달하였다. 일본해상보안청소속의 소해정들도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미군과 괴뢰군이 벌리는 각종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수로안내와 기뢰해제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리승만도당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과 그 무슨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개시하는 망동도 부리였다.

1951년 10월 리승만도당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재아래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외교국장을 하던자는 미국의 지시대로 일본과 괴뢰정부의 대표들을 불러다놓고 《일본의 <한국>진출은 미극동정책의 기본요구》이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조선전쟁에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참여하는것을 원하고있다.》고 하면서 《량측이 속히 회담을 열고 국교를 실현할것》을 요구하였다. 천년숙적인 일제를 끌어들여서라도 궁지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건지고 북침야욕을 기어이 실현할 기도밑에 리승만역도는 미국의 지시대로 일본과 야합하는 길로 나아갔다. 《유엔군사령부》의 외교국에서 진행된 섬나라것들과의 예비회담에서 괴뢰패당은 가까운 시일내에 본회담을 열것을 약속하였다.

1952년 2월에 개최된 괴뢰들과 일본과의 제1차회담에서 섬나라것들은 《<한국>내 일본인재산에 대한 청구

권》문제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저들의 만고죄악을 감추고 탐욕적리익을 채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술책이였다.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괴뢰당국은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1953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괴뢰들과 일본사이의 제2차회담에 이어 같은 해 10월의 제3차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구보다는 괴뢰들의 굴종적태도에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40여년간의 조선통치는 조선인민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줴치였다. 리승만도당은 1958년 4월에 일본반동들과 제4차회담을 벌려놓고 민족의 리익을 일본에 팔아먹는 모의를 벌렸다.

이렇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이 친일사대행위를 일삼던 리승만역도는 1960년 4월인민봉기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였다.

2. 친일에 명줄을 건 군사깡패무리

□ 《다까끼 마사오》가 체결한 제2의 《을사5조약》

1961년 5월 16일 괴뢰지역에서는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1960년 4월인민봉기이후 날로 강화된 인민들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질겁한 미국은 박정희역도를 비롯한 군사깡패들을 부추겨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괴뢰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지향을 짓밟았다.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역도는 미국의 비호밑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실현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1961년 7월 역도는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계속되여온것은 두 나라에게 다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혁명정부>는 한일회담을 년내에 일괄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괴뢰도서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167페지)고 지껄이면서 일본과의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박정희역도가 권력의 자리를 탈취하기 바쁘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매달린것은 역도의 친일매국근성과 관련된다.

역도는 보통학교에서 교원노릇을 하다가 1940년 23살때에 당시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의 수도에 있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만주로 갔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것으로 하여 입학이 어렵게 되자 박정희역도는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는 추태를 부리면서까지 기어코 학교에 입학하였다.

《2년의 과정을 마친 금년도 군관학교 제2기 졸업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이리하여 11시 50분부터 다시 교정에 정렬한 후 졸업증서수여와 빛나는 우등생 오까미, 고야마, 다까끼 등 5명에게 각각 상장을 전달하고 페식하였다.》

이것은 괴뢰만주국에서 조선어로 발행되던 친일신문인 《만선일보》 1942년 3월 24일부에 실린 기사이다. 기사에 나오는 다까끼가 바로 《다까끼 마사오》로 《창씨개명》한 박정희역도였다.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장 일본륙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역도는 졸업후에는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부대에 배치되여 항일무장부대들에 대한 《토벌》에 앞장섰다. 이처럼 젊은 시절부터 일본을 숭배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온것이 체질로 굳어졌기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후에도 박정희역도는 사무라이영화를 즐겨 보았으며 자주 일본군복장을 하고 일본식검도를 즐기였다.(괴뢰도서 《친일정치 100년사》 293페지)

하기에 1963년 박정희역도의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 괴뢰지역에 온 일본자민당 부총재라는자는 《박정희와는 서로 <부자간의 관계>라고 자인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자식을 경축하는 자리에 림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공공연히 줴치였다.

괴뢰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장성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괴뢰들과 일본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 《반공보루》를 구축하려고 획책하였고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박정희역도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것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1961년 5월말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극동에서 가장 긴요한 문제이며 <한국>은 장래의 정치적, 경제적안정을 위하여 일본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댔으며 6월에는 당시 미국대통령 케네디가 미국주재 괴뢰대사를 불러다놓고 《미국은 가장 조속한 시일안에 한일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압박하였다.

일본반동들도 《<한국>이 공산세력의 지배하에 떨어진다면 일본의 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에 로출될것》이라고 하면서 박정희역도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괴뢰들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박정희역도와 미국, 일본반동들의 불순한 야망과 기도의 일치로 1961년 10월부터 이른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재개되였다. 박정희역도는 《제2의 리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만은 반드시 타결시키겠다.》고 줴치면서 친일굴종의 길로 서슴없이 나갔다. 당시 《한일회담》의 괴뢰측대표였던 김종필은 《역적의 비난을 받더라도 이번 회담만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날강도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물었다.

1962년 11월 도꾜에서 진행된 《김종필-오히라회담》에서는 《대일배상권》을 《경제협력》으로 대체하여 괴뢰들이 일본으로부터 몇푼의 돈을 받는다는것을 합의한 문서가 교환되였다. 김종필역도는 회담당시 독도문제가 거론되자 《아무 쓸모도 없는 섬을 차라리 폭파해버리자.》는 식으로 일본의 령토강탈책동에 아부하였다.

1964년에 들어서면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더 강해지는 속에 박정희역도는 《3월타결, 4월조인, 5월비준》을 떠들어댔다. 이것은 각계층의 거세찬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벌린것으로부터 시작된 인민들의 투쟁은 그해 6월 5일까지 곳곳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6.3봉기》로 불리우는 이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및 성토대회》, 《난국타개학생총궐기대회》 등을 련이어 열고 《시국선언문》들을 발표하였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00만학도가 단결하자!》는 구호밑에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반일반괴뢰투쟁은 5월 30일부터 시위투쟁의 범위를 벗어나 실력행사로 넘어갔다. 6월 2일 서울에서는 외세를 배격하며 괴뢰도당을 반대규탄하는 시안의 여러 대학, 고등학교학생들과 시민들의 대중적시위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날 3 000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독재정권 타도하라!》,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외세자주화투쟁을 완강히 벌렸다. 서울에서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이러한 투쟁은 전주, 청주를 비

롯한 도시들에도 확대되였으며 광범한 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6월 3일에 청년학생들의 반외세자주화투쟁은 폭력적인 투쟁에로 넘어갔다. 이날 서울시안의 대학, 중고등학교학생들과 수만명의 시민들은 괴뢰중앙청을 일시 점령하고 괴뢰국회의사당을 포위하였으며 청와대에까지 육박해들어갔다. 괴뢰지역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의 6.3봉기는 미국과 괴뢰도당의 파쑈통치체제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으며 박정희역도와 일본반동들의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지되였던 《한일회담》은 196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시작되였다. 박정희역도는 그해 4월에 진행된 회담에서 《현안문제들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합의요강》을 가조인한데 이어 6월 22일에는 끝끝내 매국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조작하는 반민족적범죄를 저질렀다.

괴뢰들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1개의 《조약》과 4개의 《협정》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극히 매국적이고 굴욕적이였다.

《조약》과 《협정》들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선린우호》, 《상호존중》, 《청구권》과 《경제협력》과 같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 팔아먹는 문구들만 라렬되여있었다.

박정희도당은 일본반동들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에 일본

정부가 《무상공여 3억US$, 장기저리자대부(유상차관) 2억US$의 경제협력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제2조에 《량 체약국과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는것을 확인한다.》고 밝히는 쓸개빠진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밖에도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와 문화재협력에 관한 협정》 등 괴뢰들과 일본반동들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차있다.

극악한 친일매국노인 박정희역도가 일본과 체결한 《조약》과 《협정》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일본에 팔아먹은 제2의 《을사5조약》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한일협정》체결이후 일본반동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괴뢰지역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마수를 뻗치였다.

1965년 12월 서울에 대사관을 설치한 일본은 괴뢰들과 《정기각료회의》, 《국회의원간담회》, 《협력위원회》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벌리면서 저들의 침략적요구를 괴뢰들에게 내려먹이였다. 또한 《친선협회》와 같은 친일단체들을 근 20개나 조직하고 친일세력들을 조직화하였다.

일본은 괴뢰지역에 대한 경제적침략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협회》와 《민간합동경제위원회》와 같은 경제침략기구들을 조직한 일본은 《청구권자금》집행과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괴뢰경제의 명맥을 거머쥐였다. 1970년대초에 이르러 일본이 괴뢰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80%이상에 달하였다. 일본은 자국에서 배척받는 공해산업과 로동집약적산업을 괴뢰지역에 이전시켜 하청생산기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세워진 기업들은 대부분 원료에서부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들이였다.

박정희역도는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일본과의 거래를 벌리면서 막대한 검은돈을 뜯어내여 제놈의 사욕을 채우기도 했다. 1971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은 엄청난 선거자금을 뿌렸다. 당시 서울의 지하철도건설을 위해 일본에서 전동차가 수입되였는데 대당 가격은 일본국내가격의 2배에 달하는 6 300만¥에 달하였다. 또한 일본이 괴뢰지역에 알루미니움주식회사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한 1 300만US$중 절반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일본산 자동차가격도 거의 2배로 부풀려져 괴뢰지역에 수입되였으며 포항제철소건설에 투자한 일본자본의 일부도 없어졌다. 일본과의 경제거래에서 부풀려지고 사라진 돈이 모두 박정희역도에게 흘러들어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리용되였다는것이 후날에 드러났다. 하기에 박정희역도의 밑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자는 자기의 회상록에서 《박정희는 일본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권>안보에 리용하였다. 적어도 1963년 <대통령>선거이래 <한국>의 정치 특히 선거는 일본의 자금에 의해 진행되였다. 다시말하면 오늘의 박정희가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은 일본자민당세력의 정치자금이였

다.》라고 폭로하였다.

《한일협정》체결이후 《군사교류》라는 명목하에 일본《자위대》 장교들과 장성들이 뻔질나게 괴뢰지역에 드나드는 등 괴뢰들과 일본과의 군사적결탁도 강화되였다. 1970년당시 일본방위청 청장이였던 나까소네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져 <유엔군>이 파병되면 일본군도 이에 참여할것이다. …그밖의 사태라도 미군이 작전하게 되면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조선반도에 일본군의 상륙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내 일본인재산에 위해가 가해진다고 판단될 때 그 보호를 위해 우리 군대가 상륙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망발함으로써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이밖에도 《어업협정》에 의해 괴뢰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일본의 문화적침략도 더한층 강화되였다.

실로 특등친일주구인 《다까끼 마사오》의 친일매국추태로 하여 괴뢰지역은 미국의 식민지인 동시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여갔다.

□ 《운명공동체》를 떠든 군사파쑈깡패

친미, 친일사대매국과 파쑈독재를 일삼던 박정희역도가 뒈진 후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것은 군부깡패 전두환역도였다. 이자 역시 친일매국에 환장이 된 민족반역자였다.

당시 극악한 친일주구였던 박정희가 하루아침에 심복의 총에 맞아죽자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이라며 애석해한 일본반동들은 와세다대학의 한 교수를 들여보내여 박정희사살후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위원장감투를 쓰고있던 전두환을 막후에서 접촉하게 하였다. 전두환역도는 그자를 어느한 고급료정으로 끌고가 《밤의 환영연회》를 베풀었다. 연회에서 전두환역도는 과거 《황군》이 부르던 군가를 일본어로 부르면서 친일의 본색을 드러내보였다.

이를 통해 역도의 친일기질을 확인한 일본은 1980년 9월 전두환역도의 《대통령》취임식에 《축전》과 《축하단》을 보낸데 이어 전 수상 후꾸다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괴뢰지역에 파견하였다. 전두환역도는 후꾸다를 만난 자리에서 《고명한 일본의 정치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주어 고맙다.》느니, 《전번 취임식에 축전을 보내준 스즈끼수상에게 사의를 표시한다는것을 전해달라.》느니 하면서 온갖 비굴한 추태를 다 부리였다.

전두환역도의 집권당시 괴뢰경제는 미국과 일본에 예

속된 기형적인 구조와 과도한 군사비지출로 하여 침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역도는 경제위기의 출로를 《일본과의 경제협력》에서 찾고 섬나라것들에게 구차한 구걸질을 일삼았다.

1981년 5월 서울에 온 일본 지지통신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역도는 《80년대 국제정세를 전망하면 도처에 전쟁위험이 있으며 장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반도는 전략적요충지이며 이 지대는 하나의 키를 쥐고있다. 80년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공동의식, 운명공동체의 인식에 기초한 차원높은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고 지껄이면서 섬나라것들에게 도와줄것을 애걸복걸하였다. 당시 일본출판물들은 전두환역도가 일본과 괴뢰지역과의 관계를 《운명공동체》라고 묘사한것을 두고 《<한국>의 집권자가 일본을 <운명공동체>라고 부른것은 처음의 일이다.》고 하면서 《<한국>측이 과거의 원한을 극복하고 <운명공동체론>을 제안해온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상으로 60억US$정도의 원조를 주는것은 값싼것이 아닌가.》라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인 일본을 《운명공동체》라고 추어올린 전두환역도는 1983년 1월에는 당시 일본수상 나까소네를 《공식방문》의 형식으로 괴뢰지역에 끌어들이였다. 그전에도 일본의 현직수상이 괴뢰지역을 행각한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경축사절》이나 《조문사절》의 성격을 띤것이였고 《공식방문》은 나까소네가 처음이였다. 전두환역도는 나까소네와의 회담에서 허리를 굽혀 빌붙은 끝에 높은 리자률로 40억US$의 차관

을 주겠다는것을 약속받았다.

여기에 감지덕지한 역도는 다음해 9월에는 괴뢰집권자로는 첫 《공식방문》의 명목으로 일본에 기신기신 찾아갔다. 도꾜에서 나까소네와 만난 전두환역도는 《확실히 일부 반대세력도 있었지만 나로서는 그러한 일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한일 1천년의 우호의 력사를 만들기 위해 일본방문을 결단하였다.》고 아부아첨하였다. 또한 역도를 궁성에 불러들인 왜왕이 《불행한 력사가 있은것은 유감》이라는 넉두리를 늘어놓자 《력사적인 한일관계의 새 개막에 즈음하여 폐하가 량국관계사에서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말한것을 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엄숙한 마음으로 경청하였다. 우리 량국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오늘보다 밝고 보다 친근한 한일간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서 귀중한 디딤돌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고 뇌까렸다. 그리고 일본방문기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선린우호관계》라느니, 《자유, 평화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리념을 추구하는 한일 량국간의 협력관계》라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전두환역도가 일본에 건너가 부린 추태를 두고 각계층 인사들과 언론들은 《대일매국외교》라고 규탄하면서 《너무나도 잔혹했고 처참했던 과거였던것만큼 히로히또왕의 몇마디 말은 민족의 마음속에 새겨진 분노를 단 1%도 해소할수 없다.》, 《일왕은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법을 썼다. 이 발언은 절대로 사죄가 아니다.》고 성토하였다. 하지만 전두환도당은 왜왕의 발언이 《사죄》라고 하면서 일본반동들의 립

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다.

전두환역도가 친일매국책동에 매여달리는 속에 괴뢰경제의 대일의존도, 대일예속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한 괴뢰출판물은 이에 대해 《<한국>경제의 일본경제의 <하청경제>적성격이 더욱 짙어가고있다. 그것은 <한국>경제의 대일예속의 심화를 의미하는데 그 예속화는 자본, 자재, 기술, 판로에 이르는 모든 경제령역에까지 확대되는 전면적이며 종합적인 예속화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질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괴뢰들은 공업품의 40%, 원료, 자재의 46%, 기계류의 60%이상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결과적으로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1년간의 괴뢰들의 대일무역적자루적액은 381억US$에 달하였으며 1987년 한해동안에만 해도 대일무역적자액은 60억US$에 달하였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괴뢰들과 일본사이의 이러한 무역불균형이 구조적원인때문이라는데 있다. 일본의 차관에 의하여 《성장》한 괴뢰수출산업은 일본에서 부품과 원료, 기계설비를 들여다 값싼 로동력으로 조립하여 수출하는 방식이였으므로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에서 원료, 부품, 기계설비를 더욱더 들여와야만 하는 수입증대구조가 굳어졌다.

전두환역도의 집권기간 일본과의 군사적결탁도 더욱 강화되였다. 역도는 집권직후 전 일본수상 후꾸다와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것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량국군간에 무기, 부품, 탄약 등의

호환성을 실현한다. 군인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한다. 유사시 상호지원부대를 파견한다.》 등이였다. 이처럼 집권초기부터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꾀한 전두환도당은 일본에서 땅크생산용특수장갑판을 비롯하여 땅크, 장갑차, 군함부속품들을 몰래 수입하여 저들의 살인무기생산에 리용하는 한편 《군사교류》라는 미명하에 일본《자위대》것들과 일본방위대학교 학생들을 괴뢰지역에 끌어들여 북침전쟁모의를 벌렸다. 또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일본《자위대》 장교들을 《견학》이라는 명목하에 참가시키는 등 《한미일3각군사동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두환역도에 의해 썩어빠진 일본문화도 괴뢰지역으로 물밀듯이 쓸어들어왔다. 전두환도당은 1982년 4월 일본과 《문화교류기금》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청소년, 문학, 음악 등의 교류를 대폭적으로 추진》시켜나갔다. 이 《문화교류기금》은 창설후 류학생교환, 문학작품소개, 교향악단교환, 미술전람회교환 등으로 괴뢰지역에 대한 일본의 문화침략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였으며 그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괴뢰지역 어디에서나 일본어가 범람하고 일본의 소설, 료리, 노래, 가극, 만화가 해당 분야를 휩쓸었다. 지어 《천리교》, 《일련정종불교회》, 《선린회》를 비롯한 일본의 종교단체들까지 괴뢰지역에 침투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군사파쑈깡패인 전두환역도와 그 패당은 이처럼 추악한 친일사대매국책동으로 력사에 죄악의 페지들을 남겼다.

□ 《미래지향》으로 감싼 친일굴종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

이것은 1987년말 괴뢰대통령선거에 나섰던 로태우역도가 내든 기만적인 공약이였다. 로태우역도는 괴뢰대통령취임식때 서울에 기여든 일본수상 다께시다와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요란스럽게 떠든 《보통사람》이라는 말이 1932년당시 일본의 총리대신이였던 이누가이가 떠들던 《평민, 서민, 민주》라는 발언에서 생각해낸것이라고 뇌까렸다.

이 망발을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로태우역도도 친일매국을 생리로 하는 추악한 역적이였다. 이자의 친일근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대통령》선거기간에 벌린 일본작가와의 회견에서 자기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명치유신》당시 《지사》들의 사상을 연구해왔다고 하면서 이또 히로부미의 선배인 다까스기 신사꾸의 사상과 행동을 숭배하는 《<한국>의 다까스기 신사꾸》가 바로 자기라고 지껄인데서 잘 알수 있다.

역도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자기의 소학교 선생이였던 일본인을 청와대에 불러들인 자리에서도 《센세이!(선생님)》라고 부르며 일본영화와 일본책을 무척 좋아하고 모리노 이시마쯔라는 깡패를 존경했던 소학교시절을 잊지 못해하였다.

이런자였기에 집권기간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

고 섬나라와의 관계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로태우역도의 친일사대매국행위는 1989년 1월 왜왕인 히로히또가 죽었을 때 극도에 달하였다. 히로히또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원흉이였으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세계평화를 유린한 전범자이기도 했다. 하기에 당시 서방나라들에서까지 왜왕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왕의 죽음은 악명높았으나 뉘우치지 않는 전범자의 죽음》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총살하거나 공개적으로 목을 잘라 죽였어야 했다.》, 《그의 죽음에 그 어떤 동정을 표시한다는것은 치가 떨릴 정도로 불쾌한 일이다.》, 《일왕의 장례식에 가는것은 악마의 장례식에 가는것이나 같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로태우역도는 왜왕이 죽자마자 조전을 보낸다, 조화를 전달한다 하고 부산을 피웠으며 지어 일본에 갈 기도까지 드러냈다. 역도의 이러한 망동과 관련하여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과거 40여년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하였던 철천지원쑤의 초상집에 결코 가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역도의 일본행각을 반대배격하였다.

민심의 드높은 반일기세에 눌리운 로태우역도는 《과거의 력사를 고려》하여 일본에 가는것은 일단 삼가하겠지만 그대신 《국무총리》를 《조문사절대표》로 보낼것이라고 하면서 민의를 우롱하고 모독하였다. 이에 분노한 각계층은 우리 겨레에게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과 징병으로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무참히 학살한 장본인인 히로히또의 장례식에 《조문사절》을 파견하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돕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역도의 친일사대행위를 배격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하지만 역도는 끝끝내 왜나라에 《조문사절》을 파견하는 반민족적망동을 저질렀다.

이렇게 일본에 아부아첨한 로태우역도는 다음해인 1990년 5월에는 직접 일본에 찾아갔다. 이자의 일본행각을 앞두고 각계는 《로태우의 방일은 <한국>의 대일종속을 심화시킬것이다.》, 《이번 방일은 반통일적인 한미일3각안보체제를 강화하고 대일경제종속을 심화시키는 반민족적처사이다.》, 《8.15이후 45년이 지나도록 일본의 국가원수가 잔학한 식민지지배에 관해 사죄한적이 없고 일본의 보수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일왕의 사과는 있을수 없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있는 판국에 <대통령>이 굳이 거기 가서 얻을것이 무엇이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하지만 이자는 이런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으로 떠나면서 비행장에서 한 《출국인사》라는데서 《어두웠던 지난 시대를 씻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겠다.》고 하면서 지난날 일제의 조선침략을 백지화하려는 속심을 드러냈다. 도꾜에서 역도를 만난 왜왕은 《궁중만찬회》석상에서 《불행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통석의 념>을 금할수 없다.》는 얼빠진 수작을 늘어놓았다. 왜왕이 지껄인 《통석의 념》이란 애석한 마음이란 뜻으로서

일본에서도 잘 쓰지 않던 낡은 한자단어이며 《사죄》를 의미하는 말은 더욱 아니였다. 하지만 역도는 왜왕이 지난날의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사죄하기는커녕 《통석의 념》이라는 외마디로 굼때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신념과 용기로 단절》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노라고 맹세를 다지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자는 일본의회에서 한 《연설》이라는데서 《번영과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일본을 극구 찬양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가깝고도 가까운 동반자》로 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왔다고 아양을 떨었다.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협력》과 《공동노력》으로 《포괄적인 선린우호협력의 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괴뢰지역을 일본침략세력에 떠맡기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실상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협력》을 구걸하기 위해 괴뢰지역을 그들에게 통채로 섬겨바치겠다는 매국선언이며 일신의 안일과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수치도 모르고 체면도 렴치도 없이 날뛰며 나라와 민족을 서슴없이 팔아먹는 역적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2023년 3월 한 괴뢰언론은 로태우역도가 1990년 5월 일본행각을 마치고 돌아와 왜왕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였다. 편지에서 역도는 왜왕을 《천황폐하》라고 괴여올리며 《금번 방일을 통하여… 우리 량국국민이 미래를 향하여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본연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것이라는 평소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

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미래의 나아갈바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왜왕을 괴뢰지역에 초청하는 쓸개빠진짓까지 했다.

로태우의 일본행각은 극동지역에서 미일괴뢰사이의 3각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각본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태우의 일본행각을 계기로 일본반동들과 괴뢰들사이에 벌어진 정치회담들과 이와 별도로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일본《자위대》통합막료회의 의장사이에 벌어진 군사밀담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로태우역도가 일본을 행각하여 일본과의 《군사일체화》를 제창한것도 결국은 미국의 각본에 따라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하기에 온 겨레는 로태우역도의 일본행각이 섬나라와의 범죄적결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본반동들에게 조선반도재침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고 왜나라것들의 뒤받침밑에 정치, 경제적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매국행각, 구걸행각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아시아의 전반적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각이라고 규탄하였다.

로태우역도는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놓고서도 왜나라것들에게 아부굴종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1991년 8월 일본의 《아사히신붕》에는 괴뢰지역에 살고있던 김학순녀성이 자신이 과거에 일본군성노예였다는것을 증언하는 기사가 실리였다. 그가 일본이 감행한 치떨리는 성노예범죄행위에 대해 증언한 이후 수백명에 달하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련이어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공개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일본의 사

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반인륜적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로태우일당은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에 대해 거부적태도를 보였을뿐 아니라 그에 대해 일본당국에 《공식통고》까지 하며 그들과 야합하는 길로 나갔다. 뿐만아니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사이의 공동투쟁에 대해서도 음으로양으로 훼방을 놀았다. 괴뢰보수언론들과 친일파떨거지들도 이에 발맞추어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창피한 문제》라느니, 《력사의 심판을 받도록 기록이나 남기는것이 중요》하다는따위의 수작을 늘어놓았다.

로태우일당이 이처럼 친일굴욕적인 자세를 취하자 일본반동들은 기고만장하여 《개인청구권문제》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 의해 다 해결되였다고 제편에서 큰소리를 쳤는가 하면 일본군성노예범죄자체를 부정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괴뢰지역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일본반동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3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한은 풀리지 못하고있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떠들며 친일매국의 길로 줄달음친 로태우역도의 수치스러운 친일굴종죄악은 오늘도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3. 존엄도 수치도 모르는 친일매국노들

□ 《문민》의 탈을 쓴 매국노

괴뢰지역에서 김영삼역도가 《문민》의 간판을 내걸고 집권한 후 어느한 괴뢰잡지에는 1980년대초당시 야당생활을 하고있던 김영삼역도가 일본에 찾아가 부린 망동을 폭로하는 기사가 실리였다.

김영삼은 그때 일본에 가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또한 일본의 헌법을 고쳐 군사력증강의 제약을 없애고 일본국민총생산의 1%이내로 묶여있는 군사비를 적어도 유럽반공국가들의 군사비수준(약 4%)까지 늘여야 하며 증강된 일본《자위대》와 괴뢰군이 협동하여 《북조선》에 대항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줴치기도 하였다.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기수》라고 자처하는 이자의 넉두리에 아연실색한 일본기자들은 혹시 통역의 오역이 아닌가 해서 김영삼에게 되물었는데 김영삼은 그것이 자기의 정확한 뜻임을 재확인하였다는것이다.

김영삼역도로 말하면 한때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린자였다. 하지만 자기의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파쑈독재광과 한이불속에도 서슴없이 기여들어갔으며 그 대가로 권력

의 《계주봉》을 넘겨받았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김영삼역도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반공화국대결과 친미, 친일사대매국에 더욱 미친듯이 매달리였다.

김영삼역도가 내건 《문민정부》라는 간판도 따지고보면 사실상 섬나라것들이 쓰던것을 그대로 본딴것이였다.

당시 괴뢰잡지 《월간조선》은 《김영삼이 가장 즐겨쓰는 〈문민〉이란 말도 일본에서 쓰던것을 그대로 옮긴 〈일본식문민〉》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리고 김영삼역도 역시 족보를 따져보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친일반역을 일삼은 역적의 후예였다.

김영삼역도는 《문민》의 간판을 내걸고 권력의 자리에 기여오른 첫해에 당시 일본수상 호소가와와 경주에서 밀담을 벌려놓고 괴뢰들과 일본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느니, 《외교의 기축은 일미중시》라느니,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치고 이런 말을 한것은 자기밖에 없다.》느니 하면서 아양을 떨었다.

또한 집권초기에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협정>체결로 <한국>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섬나라것들의 망발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일본정부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따위의 나발을 불어댔다.

그리고 1994년 3월 일본에 찾아가서는 왜왕앞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이상 과거가 미래를 속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떠벌이면서 친일굴종추태를 부리였는가

하면 왜왕을 괴뢰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왜왕의 이름 《아끼히도》의 첫 글자를 딴 이른바 《에이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비밀리에 적극 추진시키였다.

김영삼역도의 친일굴종행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지위를 넘겨다보는 일본의 책동을 지지해나선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시 괴뢰패당은 《각국이 국력에 상응하게 유엔에 공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본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떠들면서 일본의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지지하는 립장을 섬나라것들에게 전달하는 추태를 부렸다.

조선동해의 지도표기문제를 놓고서도 김영삼역도는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데 대한 일본반동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망동을 부리다가 각계층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치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해역경위도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그려놓은 책자를 대량으로 찍어 내돌렸으며 그 책자를 회수할데 대한 각계의 요구가 비발치자 《세계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도를 그렇게 만들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망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야당들이 《또 한번 력사와 국민을 속이는 굴욕외교》, 《용납될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1995년은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50년인 동시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였다.

이해에 들어서면서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일제가 과거죄악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그리하여 일본은 패망 5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수상의 《담화발표》 등으로 《사죄》하는듯한 냄새를 피웠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사죄가 아닌 내외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술책인것으로 하여 세인의 조소와 규탄만을 자아냈다. 당시 일본수상이 김영삼역도에게 보냈다는 《사죄편지》란것 역시 명백한 사죄가 아닌 빈껍데기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김영삼역도는 그 《사죄편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쓸개빠진짓을 하였다. 이것은 김영삼역도야말로 친일매국근성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사대매국노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실증해주었다.

역도는 1965년에 체결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수정할데 대한 각계층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그 《협정》이 지난 30년간 《한일관계의 토대로 되여왔으므로 개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묵살하였으며 지어 《한일협정》을 철폐할것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을 탄압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그런가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포로되여서는 안된다.》, 《미래지향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각계층의 반일감정에 찬물을 끼얹고 죄악으로 가득찬 일본의 과거사를 덮어버리려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과의 정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였다.

역도는 1995년 11월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회의(아페크)를 계기로 일본당국자들과 마주앉아서는 《과거 력사인식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는 일본정객들의 망언들을 묵인해치우기도 했다. 역도의 이러한 친일매국행위에 더욱 오만무례해진 일본반동들은 《일한합방조약이 평화적으로 체결되였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는따위의 망언들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조선침략죄악을 합리화하였다.

김영삼역도는 1996년 6월에는 제주도에서 일본수상 하시모또와 회담을 열고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주는 대가로 일본과의 정치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공조체제》수립을 극구 간청해나서는 쓸개빠진 민족반역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했다.

역도의 친일사대매국행위로 하여 일본반동들과 괴뢰들의 군사적결탁이 급격히 강화되였다. 당시 괴뢰들은 일본과 군사정보의 교환, 장교의 교류, 반항공공동감시체계의 수립과 같은 군사교류를 하면서도 함대의 호상방문과 합동군사연습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감히 하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역도의 집권후 괴뢰군함선과 일본해상《자위대》군함이 일본과 괴뢰지역에 공공연히 들락날락하며 공동군사연습의 화약내를 풍기였다. 1994년 12월 괴뢰군함선들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항구에 기항한데 이어 1996년 9월에는 일본해상《자위대》함선들이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또한 1994년에 감행된 《림팩 94》군사연습때 괴뢰들은 미군, 일본《자위대》와 함께 공격조를 구성하였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한다는 미명밑

에 일본과의 쌍무적군사연습을 벌릴 모의도 벌리였다.

김영삼역도는 집권후 정치, 군사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지배와 예속을 심화시켰다.

역도는 일본이 괴뢰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 쌓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첫해에 벌써 《대일경제정책전환》이라는것을 발표하여 형식상이나마 실시해오던 일본상품들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몇해사이에 전면해제하기로 함으로써 괴뢰지역을 일본상품판매시장으로 내말겼다. 그로 하여 1994년에는 대일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US$계선을 넘어서는 등 괴뢰경제의 대일예속이 가속화됐다.

한편 김영삼역도는 퇴페적이며 색정적인 일본반동문화를 마구 끌어들여 주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반일감정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였다.

역도의 집권시기 괴뢰지역이 얼마나 일본판이 되였는가 하는것은 을사오적의 후예들이 머리를 들고 조상의 재산을 찾겠다고 돌아치는 사태까지 빚어진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김영삼역도는 한때 《한일협정》체결에 앞장섰던 김종필역도를 두고 을사오적보다 더한 친일매국노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던 이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친일역적 김종필을 여당대표자리에 앉혀놓았다. 판이 그 판이니 을사오적의 후예들도 조상들이 친일매국으로 벌어들였던 땅을 제땅이라고 우기며 되찾겠다고 나선것이다.

을사오적중에 첫손가락에 꼽히는 리완용의 후예들이

제일먼저 날뛰기 시작했다. 리완용은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많은 돈, 토지를 하사받았다. 1910년 6월에 당시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는 《총리대신 리완용씨의 재산을 모처에서 조사한바 400여만원이라 하더라.》라고 보도하였다. 당시 돈으로 400여만원이면 오늘의 시점에서 1억수천만US$에 달하는 금액이다.

리완용의 증손자라는자는 1992년부터 《증조부가 조선왕조 다음으로 많은 땅을 가졌댔다고 한다. 각지에 수천만평은 될것이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1970년 대검 중수부에서 나를 끌고가 증조부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땅 30만평을 박정희<대통령>에게 헌납한다는 문서에 수표하라고 해서 두말하지 않고 수표했다.》고 당국과의 유착관계를 로골적으로 공개하면서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여기저기에 소송을 걸었다.

결국 김영삼역도가 집권한 1993년초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있은 《토지소유권》이전에 관한 재판에서는 경기도 려주군의 땅 758평이 리완용의 증손자에게 상속된것이 인정되기때문에 땅을 그의 소유로 한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리완용의 후예는 《토지소유권》을 넘겨받는 이런 식의 소송재판에서 거듭 이겨 수많은 땅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이와는 반대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비참한 삶을 연명하였다.

매국노의 후예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위정자들의 처사앞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을 때 잡지 《말》

은 경상북도 대구에 살고있는 안중근렬사의 5촌조카인 안민생이 두다리를 잃은 불구의 몸에 하반신마비까지 겹친 상태에서 사회적버림과 랭대속에 운명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역적의 후예는 권력의 뒤받침밑에 재산을 불구어가며 호의호식하고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당국의 랭대속에 불우한 운명에 빠져있는것이야말로 친일매국이 판을 치는 괴뢰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것이다.

오죽했으면 보수언론인 《월간중앙》까지도 《리완용땅 소식에 가슴치는 독립운동가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그 보상으로 받은 매국노 리완용의 땅이나 찾아주는것이 〈정권〉이 할 일인가고 묻고싶다.》라고 절규했겠는가.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식으로 리완용의 후예에 뒤질세라 친일매국노 송병준의 후예들도 1997년에 조상이 인천에 가지고있던 1만 2천여평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소송을 냈다. 덩달아 을사오적 리근택의 후예를 비롯하여 여러 친일매국노들의 후예들도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놀음에 열을 올리였다.

김영삼역도집권초기인 1993년에 괴뢰재무부가 실시한 《재산소유실태조사》에서 일제가 패망한지 48년이 지난 그때까지 조선총독부자리를 비롯하여 7 400만평의 땅이 일본인들의 소유로 되여있다는것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후 괴뢰지역에서는 매국노의 후예들과 사기군들이 일제시기 땅소유주인 일본인이 사실은

《창씨개명》한 저들 조상이였다며 소송을 걸어 땅을 차지하는 협잡판까지 벌어졌다.

친일매국이 득세하는 현실을 놓고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통탄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 시일야방성대곡을 낳았으며 일제의 우리 나라 강점의 길을 열어준 을사오적의 후예들이 살판치는 이 땅에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가 부끄럽다.》

□ 민족의 넋마저 팔아먹은 시정배들

1998년 10월 괴뢰들은 일본과 새 《어업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괴뢰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령유권분쟁지라는것을 인정받아 독도를 강탈하려는 섬나라것들의 날강도적행위에 언질을 던져주었다.

하기에 당시 괴뢰지역의 《독도연구보존협회》는 《독도령유권을 양보한 이번 <어업협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신문 《한겨레》는 《어업협정》을 독도령유권을 지키지 못한 《개탄할 굴욕외교》로 락인하고 당국이 《협정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을 담아 공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산관련단체들도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협정》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원양어업협회》는 《어업협정》체결로 명태와 공치잡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게 되였다면서 《협정》을 당장 파기하라고 괴뢰당국에 들이댔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각계층의 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을뿐 아니라 일본에 기신기신 찾아가 친일굴종외교에 매달렸다. 당시 괴뢰당국자는 일본행각을 떠나면서 일본이 전후에 이룩한 그 무슨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또한 도꾜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전후 아시아를 위한 일본의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얼빠진 수작도 했다.

괴뢰들은 또한 일본과의 《공동선언》에 과거사문제를 몇문장 집어넣고는 《문서상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마치 일본이 똑똑한 《사죄》를 하기라도 한듯이 고아대였다.

지어 괴뢰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였다고 추어주었는가 하면 왜왕을 《천황》으로 호칭하면서 《천황이 <한국>에 오면 국민의 환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라맞추는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다. 아부굴종이면 이보다 더한 아부굴종이 어디 있겠는가.

괴뢰패당은 섬나라것들에게 반공화국공조체제를 구걸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괴뢰들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걸고들었다가 국제사회앞에서 개코망신을 당한 일본상전을 《위로》하는 노죽

을 부리면서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느니, 《안전보장협의회》를 열자느니 하며 역겹게 놀아댔다.

괴뢰들은 일본행각을 끝내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를 받아냈다느니, 얼마어치의 《차관》을 받기로 했다느니,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일본문화전면수입개방을 《약속》했다느니 하면서 수치스러운 일본행각을 합리화하였다. 괴뢰들이 받아냈다는 일본의 《사죄》란 섬나라것들의 과거죄악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한 말치레에 불과한것이였고 그 무슨 《차관》이란 교활하고 간특한 왜나라것들이 씌워준 경제적예속의 올가미였다. 한편 괴뢰들은 《대일무역적자》해소를 떠들며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실시해오던 일본상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의 강도적인 신탁통치를 받던 경제를 더욱 심각한 예속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퇴페적인 일본문화를 전면개방하여 끌어들임으로써 괴뢰지역은 왜색왜풍으로 민족의 넋이 송두리채 말살되는 지대로 더욱 화하였다.

하기에 외국어대학교의 한 교수는 집권자의 일본방문은 《몇푼의 차관에 눈이 어두워 력사의 진실을 외면》한것이며 《독도령유권문제는 말할것 없고 과거사해결이라는 근본매듭에도 전진을 보지 못한 졸작》이라고 평하였다.

참으로 괴뢰당국자의 일본행각은 비굴성과 아부아첨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 시기 야당으로 굴러떨어진 극우보수세력도 친일매

국에 극성을 부리였다.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친일매국세력에 의해 자기의 역할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해체된 후 괴뢰사회에서는 《친일파청산》이라는 표현은 《금기어》로 되다싶이 했다. 하지만 그속에서도 량심적인 인사들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 정리하여 자료화하고 친일파청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1991년에 친일파들의 죄행을 단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창립당시 명칭은 《반민족문제연구소》)가 나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괴뢰국회에서 친일파청산문제가 론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3월에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친일파 70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친일파청산을 위한 《특별법제정운동》을 호소하였다. 하여 2003년 8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였다.

이에 질겁한 극우보수패거리들의 집합체인 《한나라당》것들은 《특별법》제정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당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특별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정치적적수를 타도하는데 악용될 위험이 크다.》, 《60～100년이나 지난 친일행적의 진상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의 제정을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나중에는 그 무슨 《친북용공》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았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망동에 격분한 《민족정기수호시민련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청년학생들은 《친일잔재청산에 이 땅의 미래가 있다!》, 《친일파들을 하루빨리 숙청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국회》청사앞에서 격렬한 항의시위와 집회, 각종 전시회들을 련이어 전개하였다. 서울의 한 주민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외면하는 친일《국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까지 하였다.

각계층의 단죄규탄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개정》에 대해 떠들면서 《특별법》의 내용을 뜯어고치는 길로 나갔다. 원래 초기의 《특별법》은 일제통치기구에 들어가 식민지통치에 협력했던자들, 일제식민지통치를 찬양하고 《창씨개명》을 주장하며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운동에 앞장섰던자들, 일본군에서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가담했던자들, 군수품생산 및 자원제공행위로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을 도와나섰던자들 등 친일파조사대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정하였었다. 하지만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뜯어고쳐 간신히 세상에 나온 《법》은 언론, 예술, 교육부문에서의 친일행위는 아예 제외되고 일본군복무자조사대상은 중좌이상으로 한정하였다. 그야말로 본래의 취지와 배치되는 《누데기법》이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특별법》을 누데기로 만든 목적은 딴데 있지 않았다.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그

전신들이 모두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 하나의 향락과 치부를 위해 일제에게 빌붙어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해온 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예들이기때문이였다.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던 리회창을 놓고보아도 애비가 일제시기 《검사서기》를 하면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한 친일파였고 외삼촌과 가시애비도 일본도꾜제국대학과 와세다대학을 나와 일제에게 복무한 민족반역자들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회창은 애비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뻔뻔스럽게도 일제시대에 공적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라고 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비린청을 돋구었다.

《한나라당》것들은 《특별법》을 《누데기법》으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되던 《친일인명사전》편찬을 파탄시키기 위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망동도 부리였다.

《자유시민련대》 공동대표, 《월간조선》 편집장 등 보수떨거지들도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원망하기보다는 축복해야 할 일》이라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으며 친일청산기운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거리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역도를 비롯한 악질친일파들을 빼놓은 불과 1 000명정도의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을 발표하는것으로 사업을 마치였다. 더우기는 명단에 오른 친일파

들에 대해 형벌을 가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것과 같은 실질적조치는 취하지조차 못했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땅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도 결국 《반민특위》와 같은 운명을 피할수 없었다.

□ 《실용외교》의 간판을 들고 벌린 친일굴종외교

2008년에 괴뢰지역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전 《정권》시기의 모든것을 다 뒤집겠다고 공약한 극우보수분자인 리명박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과거에 건설회사 사장과 서울시장을 하면서 돈맛을 단단히 들인 이자는 모든것을 《실용》의 자대로 재겠다고 하면서 저들에게 《실용정부》라는 간판을 달고 외교도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역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일본과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사과하라거나 반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쓸개빠진 나발을 불어대며 《왕복수뇌외교의 복구》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리고 2008년 4월 일본을 행각하여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망동을 부렸다. 민족의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역도는 왜왕을 《천황》으로 칭하면서 낯뜨거울 정도로 굽신거리기도 했다. 일제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릴 의사를 로골적으로 표명한 리명박역도를 두고 일본반동들은

오사까에 태줄을 묻은 리명박이야말로 보기 드문 《친일파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시대가 열렸다.》고 환성을 질렀다.

역도의 일본행각시 일본수상과의 공동기자회견장의 앞탁에는 류다른 마크가 붙어있었다. 일명 《고시찌노기리》라고 부르는 이 마크는 조선민족의 피맺힌 원쑤인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사용하였던 마크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지어 조선사람의 코까지 베여 소금에 절여 가져오도록 한 침략의 괴수인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쓰던 이 마크는 그후 조선총독부에서 사용하였고 일본수상실도 그대로 쓰고있었다. 그 마크는 일본의 피비린 조선침략력사와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는 것이였다. 리명박역도의 일본행각때에 나타난 이 마크는 역도를 대하는 일본의 관점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역도의 일본행각과정을 통하여 이자의 대일굴종자세를 확인한 일본은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강탈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리명박역도의 일본행각직후인 2008년 5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소, 중학교 사회과목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로 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학교의 경우는 2011년부터, 중학교의 경우는 2012년부터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로 정식 표기되게 되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일본당국은 2008년

5월 내각관방장관발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 《기본립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도발적인 선언까지 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은 실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었다.

일본반동들의 날강도적이고 오만무례한 책동에 분노한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력사를 외곡하는 처사,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철면피한 태도》라고 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역도는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에 대해 《일시적흥분으로 강경대응할 일이 아니다.》고 떠들었는가 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내세워 《우리가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경우 일본도 과거사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것》이라는 어리석고 쓸개빠진 수작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신문 《한겨레》는 《리명박<정권>은 굴종대가로 일본에 뺨맞은 <정부>》라고 비난하였고 《MBC》방송도 《리명박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웨치다가 독도교과서로 뒤통수를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리명박의 실용외교》라고 조소하였다.

리명박역도는 그후에도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력사인식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후퇴할수 없다.》, 《한일관계는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쌍무관계》라는 나발을 계속 불어댔다. 지어 2008년에 일본수상 후꾸다가 독도강탈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해 항변은커녕 《지금은 곤난하니 기다려달라.》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그리고 2009년 1월 일본수상을 괴뢰지역에 끌어들여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인식이 완전히 일치되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할것을 모의하였다.

리명박역도의 이러한 대일굴종자세에 기고만장해진 일본반동들은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고 쪼아박았으며 괴뢰려객기의 독도상공비행을 걸고들며 공무원들의 《<한국>려객기리용자제령》을 내리는 망동도 부리였다. 특히 자민당의 극우정치인들은 《독도령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에 대한 시찰》을 운운하며 김포비행장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역도의 친일굴종자세는 친일파들을 대하는 립장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역도는 집권직후인 2008년 4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릴 친일파 4 7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느니, 《국민화합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느니 하고 지껄이면서 친일파들을 로골적으로 비호두둔해나섰다.

역도의 이러한 친일망동에 편승하여 당시 경기도 지사라는자는 어느한 모임에서 《일제식민지가 안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망발하여 사회적물의

를 일으켰으며 청와대비서관이라는자는 《일제때 친일이 불가피》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각계층의 비난을 받았다. 이른바 《신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파의 어용학자들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근대문명》과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다는 등의 황당한 론리로 일관되여있는 그 무슨 《대안력사교과서》라는것을 들고나와 내외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리명박역도의 친일매국행위는 집권말기인 2012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책동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괴뢰들과 일본을 한데 묶어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책동해온 미국은 리명박역도에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것을 강박하였다. 일본반동들도 《북조선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방위상을 괴뢰지역에 보내여 괴뢰들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압력을 가하였다. 리명박역도가 미일상전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나섬으로써 2012년 6월 괴뢰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게 되였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여 각계층의 견결한 반대배격에 부딪치자 괴뢰패당은 《협정》조인을 하루 앞두고 《협정》체결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집권 전 기간 《실용외교》라는 간판밑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섬나라것들에게 팔아먹은 리명박역도의 죄악을 겨레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 남의 땅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괴뢰지역에서는 조선사람의 탈을 쓰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왜나라것들에게 송두리채 팔아먹는 추악한 친일매국노들을 가리켜 《토착왜구》라고 부른다.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역도야말로 《토착왜구》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역도의 친일매국책동은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일본과 그 무슨 《합의》를 이룩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집권초기에 역도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력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에 강경자세를 취하는척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문제에서 저들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를 취하는 일본의 행태에 격분한 민심을 누잦히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개꼬리 3년 가도 황모가 못된다는 속담그대로 2015년에 들어서면서 역도는 《일본과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떠들면서 친일굴종의 본색을 드러내보이였다. 그해 6월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의 주최로 진행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행사》라는데 코를 들이민 박근혜역도는 올해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원년》이 될것이라느니,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니 하며 상전에게 역겨운 추파를 던지였다. 그 본을 따라 괴뢰외교부 장관이라는자도 일본군

성노예문제해결이 일본과의 《수뇌회담의 전제가 아니》라느니, 《과거사와 관계개선을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느니 하는 친일망발을 줴쳤다.

하여 그해 12월말에 괴뢰들은 일본과 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 《합의》를 이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언론에 공개된 그 《합의》라는것은 온통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는 굴종적인 내용으로 가득차있었다. 일본은 수상이 아니라 외무상을 내세워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저들이 직접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대신 괴뢰들이 만든 《위안부지원재단》(가칭)이라는 단체에 몇푼의 돈을 쥐여주는것으로써 생색을 냈다. 그리고는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쪼아박았다. 이것은 1965년 괴뢰들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협정》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는것을 확인한다.》는 문구와 신통히도 닮고 거기에다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간것으로 하여 더욱 굴종적인 《합의》였다. 이 표현들은 물론 일본의 강박에 의해 명시된것이였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붕》이 보도한데 의하면 당시 일본수상 아베는 외무상을 불러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섭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지어 아베는 《합의》이후에는 《일본의 사죄전달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있다.》, 《이후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온갖 비인간적만행을 감행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악무도한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이 없이는 최종적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이 일본의 만고죄악을 백지화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전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 일본의 책임과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인류량심과 정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박근혜패당이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옮기라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한 사실 역시 용납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소녀상으로 말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해온 단체들과 인민들이 근 20년세월 수요일마다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진행한 반일집회가 1 000차가 되는것을 계기로 2011년에 세운것이다. 단발머리에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의자에 앉아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는 13살 소녀를 형상한 소녀상은 나어린 소녀들마저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간 일본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여왔다. 수많은 인민들도 1년 내내 소녀상앞에 모여와 일본의 범죄를 성토하여왔으며 다른 지방과 세계 여러곳에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여기에 질겁한 일본은 박근혜역도에게 몇푼의 돈을 쥐여준 대가로 소녀상을 철거할것을 《합의》한것이다. 《합의》발표후 당시 일본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10억￥을 지급했으니 소녀상철거를 조속히 리행해달라.》고 괴뢰들을 압박하였다.

참으로 박근혜패당이 일본반동들과 체결한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합의》야말로 천년숙적인 일본에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천추에 용납 못할 친일매국행위의 극치로서 치욕적인 제2의 《한일협정》이나 같다.

성노예범죄피해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을 무마시킨 박근혜역적패당의 친일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괴뢰지역의 각계층과 언론들은 《1965년에서 2015년으로 이어진 일본과의 협상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대통령>을 통해 되풀이되고있는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을미사변>수준》, 《정확히 50년이 지나 또다시 명예와 자존심을 돈을 받고 파는 어리석은짓을 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역도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반민족적망동도 저질렀다.

애비인 《유신》독재자의 《친일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역도는 집권초기부터 전범국인 일본이 《집단적자위권》행사라는 미명하에 해외침략에로 합법적으로 나가려는것에 대해 《<집단적자위권>은 유엔헌장에 있는 보통국가로서 갖춰야 할 권리중의 하나》라고 떠벌이면

서 일본의 망동을 지지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또한 해외에 파병된 괴뢰군에 일본《자위대》가 1만발의 총탄을 제공해줄것을 구걸하면서 일본과의 군사적교류에 집요하게 매달리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범죄까지 감행하였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리명박역도집권시기인 2012년에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된 후 조인 하루전에 각계층 인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체결이 취소되였었다. 그러나 박근혜역도는 《세월》호침몰사고라는 대참사로 괴뢰지역이 초상집이 되고 도처에서 피해자가족들과 각계의 원한과 울분이 치솟고있던 때 사고수습은 제쳐놓고 무산되였던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를 다시 추진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초불항쟁에 의해 제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던 2016년 11월 끝끝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함으로써 천년숙적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하기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재진출과 일본의 군국주의재무장을 도와주는 반역행위》, 《추문사건으로 권력기반이 붕괴된 박근혜가 협정체결을 강행한것은 흩어진 보수지지층을 다시 집결시키려는 꼼수》라고 견결히 규탄하였다.

박근혜역도가 탄핵당한 후에도 극우보수패거리들은 친일사대매국책동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였다.

2018년 10월 괴뢰대법원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이 13년전에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괴뢰대법원은 판결에서 1965년의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무효라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했다.

일본은 이 판결을 두고 《한일협정》을 위반했다고 생떼를 쓰면서 괴뢰들에게 경제적보복행위를 감행하였다. 《한일협정》위반을 구실로 일본반동들은 괴뢰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반도체생산의 필수소재들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를 내리였을뿐 아니라 《수출심사우대국명단》에서 괴뢰들을 제명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뿐만아니라 2019년 1월 조선동해상에서 괴뢰군함선을 《자위대》의 해상순찰기로 위협하는 등 각 분야에서 못되게 놀아댔다. 이에 대항하여 괴뢰지역 곳곳에서는 일본제품불매운동, 일본려행중지운동, 아베규탄투쟁 등의 반일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졌다.

그러나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한 《자유한국당》(《자한당》)패거리들은 각계층의 이러한 반일투쟁을 헐뜯으면서 《토착왜구》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역적패당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할데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매일같이 언론앞에 나서서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기지 못할 싸움에 끌려들어가는것은 재앙이다.》, 《지금

은 친일을 할 때이다.》고 고아대면서 각계층의 반일투쟁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어 역적당패거리들은 《우리 일본정부》, 《대일민국》이라는 망발을 버젓이 내뱉았는가 하면 각계의 정의로운 반일투쟁을 《신쇄국주의》, 《감정적인 반일선동》, 《무모한 자살적행동》으로 모독함으로써 뼈속까지 쩌든 저들의 친일매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자한당》패거리들의 이처럼 흉악한 친일매국망동에 극우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바른미래당》(당시)소속 《국회》의원, 극우보수론객 등 어중이떠중이들까지 가세하여 《일본과 등을 지면 <한일동맹>이 끊어지고 안보가 위험해진다.》, 《아베수상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강제징용은 조선인들에게 좋은 일이였다.》 등의 반역적인 망발들을 마구 내뱉으며 천년숙적에게 아부굴종할것을 력설하는 추태를 부렸다.

2019년 7월 괴뢰지역에서는 여러명의 극우보수매문가들이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위안부는 매춘하러 간것》, 《독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반일종족주의》라는 쓰레기도서를 발간하기까지 하였다.

《자한당》을 비롯한 친일역적무리들은 괴뢰군함선에 대한 일본해상순찰기의 위협비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다.》, 《한일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적과도 동맹하는것이 외교이다.》고 지껄여대면서 《국익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얼빠진 수작질을 해댔다.

《자한당》패거리들은 박근혜패당이 일본의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하였던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이 결정되였을 때에도 《심중치 못한 결정이다.》, 《지나친 과거지향적자세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는 분리해야 한다.》는따위의 해괴한 망언을 줴쳐대며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나서는 일본반동들의 날강도적궤변을 비호두둔해나섰다.

괴뢰들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떠올랐던 2019년 11월 《자한당》패거리들의 친일망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황교안, 라경원을 비롯한 《자한당》우두머리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는 미군철수론의로 이어질것이며 결국 안보와 경제에 초강력폭풍이 들이닥칠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미일3각안보협력붕괴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위기에 놓이게될것이다.》고 횡설수설해댔다. 지어 당대표였던 황교안은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반대》 등을 내들고 청와대앞에서 단식하는 해괴한 놀음까지 벌려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받았다.

《자한당》패거리들을 비롯한 친일매국역적들의 행위가 얼마나 눈꼴사나왔으면 당시 한 인터네트신문에 《토착왜구식별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겠는가. 글에서 필자는 《제일 선명하게 눈에 띄우는 토착왜구》는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리용하지 말라.》, 《일본상품불매운동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일할 때가 아

니라 반북할 때》라고 줴치며 일본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고 반일운동을 시비질하는자들, 일제강점시기 조선이 《근대화》되였다고 주장하고 강제징용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외면하는자들, 박정희역도가 체결한 《한일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자들, 구일본군에 복무한자들을 찬미하고 일본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말자고 부추기는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토착왜구》들은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장장 40여년간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이 강제징용으로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심지어 섬나라것들은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이름까지 없애려고 발광하였고 수많은 지하자원과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강탈해갔다.

이러한 천년숙적을 《참 고마운 나라》라고 찬미하며 아부굴종하는자들을 《토착왜구》라고 비난하고 단죄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4. 만고역적 《윤완용》

을사오적의 매국배족행위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20세기초 서울 곳곳의 위생실문들에는 《리완용의 밥》이라는 조소적인 글들이 씌여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는 뭐나 먹으라는것이다. 그때의 애국지사들이 살아서 오늘의 괴뢰지역현실을 본다면 아마 위생실문들마다에 《윤석열의 밥》이라는 글을 새기였을것이다.

현 괴뢰대통령 윤석열역도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한 인터네트에는 《래일 취임식에 수류탄테로하실분 구함》이라는 글이 올랐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윤봉길렬사는 일본거두들에게 밥곽폭탄을 던져 즉사시켰다. 오늘날 친일파후손들이 취임식을 하는 암울한 시대에 실날같은 희망을 불어넣어줄 렬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글이 오르게 된것은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선거 전 기간 가는 곳마다에서 《3.1운동의 정신은 반일이 아니다.》,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미일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조선반도에 들어올수 있다.》는 등의 망발들을 하며 친일역적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기때문이다.

당시 이자의 친일망언들이 얼마나 도수를 넘었으면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까지도 《윤석열은 <한국>의 뿌리깊은 반일 대 친일의 이분법적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해나선 보수의 유력한 대선후보》라고 보도하였겠는가.

이렇게 집권전부터 친일사대매국노의 본색을 드러낸 이자는 권력을 잡은 후에는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친일망동을 거리낌없이 일삼고있다.

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미국대통령에 이어 일본수상과 전화통화를 하고는 일본류학경험이 있는 친일파들로 꾸린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섬나라에 파견하여 쌍방관계개선과 이를 위한 《한일정상회담》개최를 구걸하였다. 그런가 하면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한 고위직들에 리명박역도와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매국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합의》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친일분자들을 올려놓아 일본의 환심을 사보려고 했다.

윤석열역도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 오른자들중에는 《안보실》 1차장 김태효도 있다. 이자는 전 일본수상 나까소네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가 《한국의 차세대지도자》로 선정할 정도로 악질적인 친일역적이다. 김태효는 지난 기간 여러건의 론문에서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리명박역도집권시기에는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앞장섰다. 이런자들을 규합하여 그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윤석열역도는 일본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얼마나 친일사대매국에 환장이 되였는가 하는것은 그 무슨 《기념사》나 《경축사》에서 내뱉은 망발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윤석열역도는 2022년 8월 그 무슨 《광복절경축사》라는데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였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거리낌없이 뇌까렸다. 2023년 3월 1일에도 역도는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를 《옹호》하다 못해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협력대상으로 변했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으며 8월의 《광복절경축사》라는데서 또다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리익을 추구하는 협력대상》이라고 지껄였다.

역도의 망언들은 이자가 일본을 얼마나 하내비처럼 섬기는가 하는것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였다. 하기에 이자의 친일망언들이 터져나온 후 각계층 인사들은 《일제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 《리완용의 망발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상최악의 3.1절기념사로 <삼일절>이 <친일절>이 됐다.》고 성토하였다. 지어 보수세력들속에서까지 《민족적자부심을 뭉갰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주변나라들에서는 역도의 《3.1절기념사》를 놓고 《몽유병에 걸려 일본에 아부했다.》, 《불굴의 저항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굴욕의 날로 됐다.》고

단죄했다.

역도가 이처럼 친일매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어릴적부터 애비의 영향을 받아 친일사대가 체질화되였기때문이다. 역도의 애비로 말하면 1965년 《한일협정》조작후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되여 히또쯔바시대학에서 류학하면서 일본맛을 단단히 들인 친일파이다. 2023년 3월 윤석열역도가 《요미우리신붕》과의 기자회견에서 1960년대에 류학을 간 애비를 만나러 일본에 갔던 일을 상기하면서 당시 일본에 대한 인상은 《선진국답게 깨끗하였다.》, 《일본분들은 정직하였다.》, 《모든 일에서 정확하다는 느낌이였다.》고 지껄인것은 이자가 잔뼈가 굳기 전부터 일본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있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오죽했으면 2023년 8월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윤석열이 부친으로부터 교육과 세계관 등의 영향을 받아 한일관계개선에 나섰을것》이라고 평가했겠는가.

친일역적인 역도의 본색은 일본의 과거범죄를 백지화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송두리채 일본에 섬겨바친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일본에 아부굴종하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윤석열역도처럼 각계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사대매국행위에 기를 쓰고 매달린자는 없었다.

이미 우에서 언급하였지만 지난 2018년 10월 괴뢰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판결하였다. 하지만 섬나라것들은 배상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였다고 하면서 과

거죄악청산을 회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법원은 괴뢰지역에 있는 일본전범기업들의 재산을 강제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또다시 판결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윤석열역도는 2023년 3월초 일본전범기업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주는 그 무슨 《제3자변제방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역도가 괴뢰외교부 장관을 내세워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민심은 죽가마끓듯했다.

한 강제징용피해자할머니는 《굶어죽어도 그런 더러운 돈은 안받는다.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놈인가. 하루속히 물러나라.》고 웨치였으며 1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하여 《3월 6일은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 《윤석열<정부>는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면죄부를 주었다.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안기는 2차가해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언론들도 《윤석열이 내놓은 <강제징용해법>은 경술국치때 친일파와 똑같다.》, 《<위안부합의>보다도 더 후퇴한 최악의 안》이라고 하면서 역도의 죄행을 규탄했다. 지어 보수세력내에서까지 《우리만 양보하는것이 진전인가? 아니 굴종이다.》, 《<대통령>이 뭔데 국민인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뭉개는가. <헌법>위반이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러한 속에 일본외무상이라는자는 역적패당의 《강제징용해법》발표이후 《력대 내각의 력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한 립장을 밝혀 괴뢰지역 민심을 자극했으며 자민당패거리들과 일본언론들도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다 통했다.》,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게 없다.》고 쾌재를 불렀다.

한편 윤석열역도는 내외의 비난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저들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것은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 《제3자변제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놈의 친일굴종을 미화분식해보려고 너절하게 놀아댔다.

역도는 일본전범기업들이 물어야 할 강제징용피해자 배상금을 저들이 지불해주는 《방안》이라는것을 발표한 때로부터 열흘후에는 일본에 기신기신 게바라가 일본수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망동을 저질렀다. 당시 윤석열패당은 《제3자변제방안》으로 저들이 물고뿌에 물을 절반 채웠기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것이라고 횡설수설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경우 일본도 과거사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것》이라고 망상하면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다가 독도령유권문제를 놓고 궁지에 몰리웠던 리명박패당의 행태를 그대로 방불케 했다. 그후의 사태발전은 만사람의 예견 그대로였다.

괴뢰집권자로서는 12년만에 일본에 찾아간 역도는 자기의 일본행각이 그동안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

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것을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쌍방관계를 1965년의 《국교정상화》이후 제일 좋게 만들고싶다고 하면서 섬나라것들에게 아부했다. 이에 기고만장해진 일본수상 기시다는 역도에게 이전 박근혜《정권》시기에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채택한 일본과의 《합의》를 착실히 리행할데 대해서와 후꾸시마산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철페할것, 괴뢰군함선이 일본해상순찰기를 레이다로 조준하며 위협한데 대해 사과할것,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할것 등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이처럼 무리한 요구에 대해 윤석열역도는 해결될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리해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기시다에게 발라맞추었다. 결국 역도는 물고뿌에 물을 마저 채워온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만 가득 지고 온 격이 되고말았다.

그로부터 불과 두달후 윤석열역도는 기시다를 괴뢰지역에 끌어들여 세간난 자식을 찾아온 애비섬기듯 온갖 비굴한 추태를 다 부리였다. 기시다와의 회담에서 역도는 쌍방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짚을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쌍방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일본의 과거죄악을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윤석열역도의 친일굴종태도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핵오염수방류문제에서도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1년에 있은 대지진과 해일로 하여 일본의 후

꾸시마원자력발전소가 완전히 파괴된 후 생겨난 핵오염수는 10여년동안 무려 130여만t에 달하고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정부는 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물자원을 핵물질로 오염시키는 반인륜적범죄로 단죄하면서 견결히 반대하였다. 괴뢰야당들과 언론들, 어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속에서도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하지만 유독 윤석열역도와 그 수하졸개들만은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지지해나서면서 일본의 편역을 들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전부터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밝히여 일본의 비위를 맞추었다. 역도의 추태에 동조하여 괴뢰총리도 방류되는 핵오염수를 마실수도 있다고 줴쳐댔고 《국민의 힘》패거리들은 수산물시장에서 바다물을 마시는가 하면 핵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 일본의 립장을 그대로 대변하기까지 했다.

역도의 비굴하고 굴종적인 태도에 더욱 기세가 오른 일본반동들속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형님벌》, 《일본이 일한관계에서 주도적위치에 서야 한다.》는 망발들이 공개적으로 튀여나오고 미쯔비시와 같은 전범기업까지 제편에서 《<한국>의 행동을 주시하고있다.》고 위협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괴뢰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일본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한 강제징용피해자에

게 《후생년금탈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77년전 화폐의 액면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99￥(괴뢰돈 931원)을 지급하였겠는가. 이런 굴욕을 당한 피해자할머니는 《일본은 피해자들이 죽기만 기다리고있다. 죽기 전에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겠다.》고 울부짖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이 피해자를 모독하고 무시하는것은 <정부>의 태도때문이다. 한일관계복원을 구실로 일본에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격분을 터놓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는 괴뢰외교부를 시켜 유엔인권리사회에 《성노예 및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사과를 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윤석열역도는 지어 친일파들을 내세우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역적패당에 의해 괴뢰만주국의 장교로 있으면서 반일투쟁에 나섰던 애국자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던 민족반역자 백선엽이 《영웅》으로 찬미되고 이자의 친일행적까지 기록에서 지워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기에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 로동자, 농민, 어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민족의 력사와 아픔을 팔아먹은 윤석열과 그 무리들은 21세기의 리완용이라고 부를만하다.》, 《왜놈들은 사죄 한마디 없는데 혼자 장고를 치고 북을 치며 왜놈들에게 알랑거리는 윤석열은 조상들의 뼈다귀나 싸들고 일본으로 가라.》, 《윤왜놈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일본총독 윤석열을 력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윤매국노를 처단하여 놈이 좋아하는 왜나라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옆에 묻어버리겠다.》, 《다시 초불을 들고 초특급친일매국노 윤석열

을 몰아내자!》, 《만고역적 윤완용》, 《매국노대통령》, 《기시다의 앞잡이》, 《룡산총독》, 《일본검찰》, 《일본간첩》, 《윤사무라이》 등으로 역도를 단죄하면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을 비롯한 각지에서 《시국선언》발표, 《시국회의》와 《범국민대회》, 기자회견, 1인시위투쟁, 초불시위 등을 련이어 열고 윤석열역도의 친일망동을 규탄배격하고있다.

윤석열역도의 친일죄악에서 더욱 용납할수 없는것은 천년숙적 일본에 조선반도재침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고있는것이다.

집권직후부터 윤석열역도는 미국상전의 지휘아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데로 나아감으로써 내외의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정상회담》이라는것이 벌어졌다.

이 회담에서 일본수상 기시다는 윤석열역도에게 《대북억지력강화를 위해 일미한공조강화가 불가결하다.》, 《<한미동맹>의 억지력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저 한다.》, 《일미한공동군사훈련을 제의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침략야망실현을 위해 괴뢰들과 손을 잡으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윤석열역도는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있다.》고 하면서 적극 맞장구를 쳤다.

이 회담을 전후하여 미국과 일본, 괴뢰들이 참가하는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외교차관회

의》, 《북핵수석대표협의회》와 같은 3자회담들이 뻔질나게 벌어졌다.

이 회담들에서 합의된데 따라 괴뢰들과 미국, 일본사이에 각종 련합훈련이 그칠새없이 벌어졌다.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매국본색은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기》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났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할 때 사용한 《욱일기》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상징으로서 오늘까지도 만사람의 규탄을 받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뻐젓이 단 일본해상《자위대》함선들을 괴뢰지역에 끌어들였는가 하면 일본에서 진행되는 관함식에 괴뢰해군함선을 참가시켜 《욱일기》에 경례하도록 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괴뢰들과 일본사이의 군사적결탁책동은 윤석열패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리행을 정상화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역도의 집권이후 괴뢰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역도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일본의 《반격능력》보유를 리해한다, 《북핵 및 미싸일위협》에 저들과 미국, 일본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 《북미싸일정보》에 대한 실시간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공공연히 지껄여댔다.

특히 역도는 2023년 3월 일본수상 기시다에게 찾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리행을 정상화하겠다고 아부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윤석열역도는 2023년 4월 미국행각을 앞두고 진행한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국>의 안보상황이 너무 시급하기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수 없다.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인들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줴치면서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을 행각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라는데서 미일괴뢰들사이의 《북미싸일정보》의 실시간공유, 반잠수함훈련 및 해상미싸일방어훈련의 정상화, 해양차단훈련을 재개한다는것을 공식화하였다.

지난 2023년 5월 일본수상 기시다를 괴뢰지역에 끌어들인 자리에서도 윤석열역도는 미국에서 채택한 《워싱톤선언》에 일본이 참가하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워싱톤선언》은 완결이 아니다,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궤도에 올라서면 일본도 참가할수 있다고 줴치면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일본도 끌어들일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윤석열역도가 군사대국화와 해외군사팽창에 열이 오를대로 오른 일본반동들에게 조선반도재침의 대문을 활짝 열어준 극악한 친일망동이였다.

윤석열역도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에서 있은 《한미일수뇌회담》에서도 미일괴뢰사이의 《북미싸일경보정보

의 실시간공유》, 미일괴뢰합동군사훈련의 《다령역에서 년례적으로 실시》 등을 미국, 일본상전과 모의하고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 괴뢰언론은 《다령역(multi-domain)은 륙해공과 싸이버는 말할것도 없고 핵과 재래식, 공격형과 방어형, 미본토를 포함한 지리적령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령역군사훈련은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한미일군사훈련이 진행될것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다른 언론들도 《미국을 위한 한미일전쟁동맹의 탄생, 동아시아정세격화불가피》, 《신랭전이라는 국제정세속에서 일본은 전수방위원칙에서 벗어나 공격용무기로 <자위대>를 무장시킬수 있게 되였다. 한미일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조선반도문제에 개입할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위대>는 <자연스럽게> 조선반도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대미, 대일굴욕외교가 안아온 파국적후과를 폭로하였다.

사실들이 보여주는것처럼 천년숙적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선반도재침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있는 윤석열역도야말로 민족의 피와 넋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윤완용》, 《윤사무라이》이다.

*　　　　*

괴뢰지역의 친일파들이 근 80년세월 일본과 한짝이 되여 감행한 죄악은 반드시 결산되여야 할 반민족적범죄, 반인륜적범죄이다. 더우기 오늘날에 이르러 윤석열괴뢰역도가 저지르고있는 친일굴종행위들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민족반역망동이다.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매국정책으로 하여 지금 괴뢰지역에서는 일본에 아부굴종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더욱 살판치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겨레가 입은 상처가 란도질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친일매국의 더러운 바통을 수십년세월 이어가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배가시켜온 괴뢰통치배들의 친일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친일로 얼룩진 죄악의 행적

집 필 김철민
편 성 김일미
장 정 김영희 교 정 주설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11월 27일
발 행 주체112(2023)년 11월 30일

ㄱ－1646ㄷ

ISBN 978-9946-31-176-0

ISBN 978-9946-31-176-0